



세종 북경사무소 최용원 변호사

“한국 로펌 중국 업무는 이제부터가 시작”

“중기업 한국 투자 자문 늘어”

“**중**국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국 내 사업과 분쟁해결은 물론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에 관한 자문 등 인바운드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12년 전 북경사무소 부임

법무법인 세종의 최용원 변호사는 여전한 의욕을 내보였다. 중국 주재 12년, 중국 법률자문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그는 2006년 세종이 북경사무소를 오픈할 때 부임해 가장 오래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된다. 물론 12년간 중국에서 자문하며 부침도 없지 않

았다. 싼 인건비를 보고 중국에 진출했던 임가공 업체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빠져나가고 한중간의 사드 갈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가 위축되기도 했다.

2013년부터 인바운드 업무 증가

최 변호사에 따르면, 사드 갈등 전에는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가 쌍방향에서 상당히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 새로운 투자 업무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는 또 제조업보다는 게임, 영화나 드라마,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사드 갈등의 영향이 컸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 로펌의 중국 업무가 고도화되

고 있다”고 고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우선 인바운드 업무 즉,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에 주목했다.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70%가 인바운드 업무라고 한다.

“중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한국 로펌 중국사무소의 업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략 2012년까지는 거의 모든 업무가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등 아웃바운드 업무였는데, 2013년부터는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등 인바운드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요.”

최 변호사는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 중에서도 반도체, OLED 등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 자문 의뢰가 많다”며 “이는 사드 갈등으로 한중간의 투자 분위기가 경색되었던 시절에도 변하지 않고 이어졌다”고 말했다.

사드 갈등에 구조 바꿔 성사시켜

최 변호사가 중국의 유명한 대기업이 한국의 학습용 애니메이션 회사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과 저작권을 인수한 거

비서들과도 중국어로 소통 인민대 법학박사과정 마치

최용원 변호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9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 남기주대 로스쿨에서 LL.M을 하고 클리포드 찬스 홍콩사무소에서 1년간 근무했으며, 이때 홍콩에 있으면서 중국어를 공부한 게 나중에 중국에 진출하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세종 중국사무소의 중국인 비서들과도 중국어로 소통하며 중국어 공부에 정성을 들인 그는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인민대 법학박사과정도 수료했다.

최 변호사는 주중한국대사관 법률고문, CIETAC과 중국 심천국제중재원(SCIA) 중재위원, 주중 한국상회(商會) 법률고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 조정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에서 한국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중국법 강연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래를 소개했다. 최 변호사 등 세종 중국팀에서 지문을 제공한 중국기업은 처음엔 한국 애니메이션 회사의 지분 전체를 수천만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으나 사드 사태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는 게 어렵게 되자 지분인수를 포기하고 애니메이션 프로그램과 관련 저작권만 따로 떼어 인수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해 결국 지난해 6월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 변호사는 “사드 사태로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인수 또는 투자가 쉽지 않았으나 구조를 바꿔 성사시킨 사례”라며 “유사한 사례가 꽤 있다”고 덧붙혔다.

또 한국기업의 중국 내 분쟁, 중국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현지법인의 구조조정업무, 한국기업의 철수(Exit)와 관련된 청산 관련 자문도 많다는 게 최 변호사의 전언이다.

2014년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중재를 신청했다가 패소하자 중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중재를 신청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콜센터 아웃소싱 등 텔레마케팅 업체인 (주)엠피씨의 손해배상사건이 세종 중국팀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분쟁해결 승소사례로 꼽힌다. 중국회사가 엠피씨의 한국 내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고, 한국의 모회사인 엠피씨가 이에 대해 일종의 손실보증을 했는데, 중국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한국회사가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중국회사가 중재약정에 따라 엠피씨를 상대로 북경에 소재한 CIETAC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세 차례 분쟁 모두 승소

중재 결과는 엠피씨의 승소. 이에 중국회사가 중국 법원에 중재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도 패소하자 다시 CIETAC에 추가적으로 중재를 신청했으나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이마저도 기각시켜 엠피씨가 100% 승소했다.

최 변호사는 “엠피씨가 손실보증 약정을 해 불리한 상황이었고, 세 번의 분쟁을 모두 중국에서 진행하게 되어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세 번 모두 승소했다”고 뿌듯해했다. 이어 “한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충분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엠피씨의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국 로펌에 제공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해 승기를 잡았다"며 "세종 중국팀의 현지화 전략이 빛어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술력 있는 한국회사 인수 관심

최 변호사는 "사드 갈등이 완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작년보다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업무,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업무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단순 임가공 제품 생산을 위한 중국 투자는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한국기업 입장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을 포기할 수 없고, 광대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인바운드 쪽에선 중국기업들이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비상장회사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회사 인수에 관심이 많은데, 이는 중국 정부가 기술력이 있는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어가 유창한 최 변호사는 중국기업들을 접촉하며 클라이언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에서의 출장도 늘고 인바운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서울 본사를 방문하는 일

“
한국기업, 중국 포기할 수 없어
광대한 중국 시장 공략 위한 투자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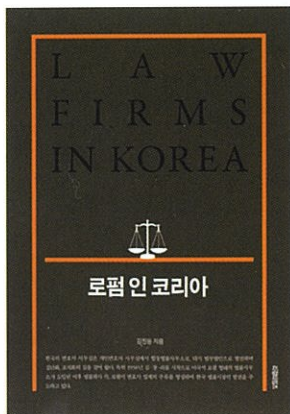
도 이전보다 잦아졌다고 한다.

“중국기업들은 한국변호사와의 이른바 관사가 아직 많지 않아 콘택트 포인트를 확보해 노력하면 워낙 많은 로펌, 변호사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한국기업보다 오히려 고객으로 확보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어요.”

최 변호사는 “올해는 인바운드 즉,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자문 확대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며 “새로운 중국 고객 기업의 발굴과 함께 기존 중국기업과의 관계 유지에 한층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새해 계획의 일단을 공개했다. ■

김덕성 기자

《로펌 인 코리아》 드디어 출간!



한국 로펌 33곳, 영미 로펌 20곳,
53개 국내외 주요 로펌 심층 분석.

로펌 선택, 로펌 취업, 로펌 창업의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구입문의는 02-3476-2015